# KIA 정해영 "지키는 야구 보여드리겠다"

## 확고한 '마무리'로 시즌 시작

## '정해영=승리' 공식 만들고 싶어

KIA 타이거즈 정해영의 기다리던 순간이 시작됐다.

2021시즌 KBO리그 최연소 30세이브 기록을 달성했던 정해영은 팀의 확고한 '마무리'로 2022 시즌을 준비하고 시작했다.

LG 트윈스와의 개막시리즈가 펼쳐진 지난 3일 2-3으로 뒤진 9회초 정해영이 시즌 첫 출격에 나섰다.

앞서 전상현과 장현식이 7·8회를 삼자범퇴로 깔끔하게 처리했고, 이어 정해영까지 등장해 KIA의 'JJJ' 필승조가 올 시즌 처음 가동됐다.

정해영은 오지환에 이어 루이스의 방망이까지 헛돌게 하면서 투 아웃을 만들었다. 문보경에게 안타는 하나 맞았지만 김민성도 헛스윙 삼진으로 잡으면서 첫 등판을 마무리했다.

정해영은 간절하게 9회말 KIA의 역전쇼를 기다렸지만, 박해민의 호수비 등에 막혀 승리는 지켜보지 못했다.

정해영은 "첫 단추를 잘 끼운 것 같다"며 "물론 팀이 이겼으면 좋겠지만 그래도 저희가 만만치 않은 팀이라는 걸 보여준 것 같고 앞으로 이길 일만 남은 것 같다"고 세 번째 시즌을 시작한 소감을 이야기했다.

마무리로 위기 상황에서 역할을 해왔지만 첫 등판에서는 어느 때보다 긴장을 많이 했다.

정해영은 "잘하고 싶다. 매년 잘하고 싶은 마음이 크다"며 "항상 시합 나갈 때는 무조건 막는다는 생각으로 뛰는데 100% 관중은 처음이어서 긴장을 많이 한 것 같다. 그게 오히려 더 집중하는 데 도움이 된 것 같다"고 언급했다.

이날 경기에서는 리그에서 손에 꼽는 KIA와 LG의 '신예 불펜진'의 맞대결이 흥미롭게 전개됐다.

눈길 끈 불펜 경쟁에 정해영은 "LG 불펜을 보면서 많이 놀랐다. LG 투수들이 원래 구위도 좋았는데 올해는 그냥 던지면 다 150㎞가 넘는다. 부럽기도 했고 '나도 한 번 던져봐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며 "앞으로 LG 만나면 이렇게 치열하게 1점차 싸움이 될 것 같다"고 다음 대결을 기대했다.

올 시즌 정해영에게는 힘이 더 생겼다. 지난 시즌 경험을 충분히 쌓았고 전상현이 부상에서 회복해 7회를 맡아주면서 9회에 집중할 수 있는 여유가 생겼다. 정해영은 "작년 9월부터 상현이 형이 와서 아무래도 9회에만 나가게 돼 몸푸는 타이밍이라든지 그런 게 좀 많이 생겼다. 몸도 더 확실하게 풀고 나갈 수 있게 됐다"며 "나 혼자만 잘하면 안 되고 다 같이 잘해야 한다. 그래야 나도 안 다치고 과부하 안 걸릴 것 같아서 다 같이 열심히 하고, 열심히 던질 계획이다"고 말했다.

또 "5회부터 이기고 있으면 우리도 지키는 야구 잘할 수 있다는 것을 많이 보여드리고 싶고, 보여드리겠다. 많이 지켜 봐주시면 좋겠다"고 웃었다.

'정해영=승리' 공식을 만들고 싶은 정해영은 이의리와 승리를 합작하는 순간도 꿈꾼다.

광주일고 1년 후배인 이의리는 6일 한화전에서 2022시즌 첫 등판을 소화한다.

정해영은 "나는 좀 더 발전해야 하는데 의리는 아프지만 않으면 최고가 될 것 같다. 안 아팠으면 좋겠다"며 "지난해 의리가 승리한 경기에서 세이브한 게 2~3번 정도 되는데 올해는 10번 했으면 좋겠다"고 기다리는 승리의 순간을 이야기했다.

한편 부상을 털어내고 두 번째 시즌을 시작하게 된 이의리는 "1주일 전부터 긴장하고 있다. 롯데 시범경기에 나갈 때도 다리가 떨렸다(웃음). 긴장을 많이 하는데 1회 끝나면 긴장이 없어져서 1회 최선을 다하겠다"며 "해영이 형이 세이브 할 수 있게 나부터 잘 던져야 한다. 내가 못하면 게임이 힘들어지니까 좋은 경기 하도록 하겠다"고 첫 등판을 앞둔 각오를 밝혔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정해영

## 2022 KBO 퓨처스리그 개막

## KIA, 8일 NC 원정경기

2022 KBO 퓨처스리그가 막을 열었다.

퓨처스리그가 5일 이천(한화-LG), 고양(두산-고양), 상동(삼성-롯데), 익산(NC-KT) 등 4개 구장에서 개막했다.

퓨처스리그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남부(KIA, 상무, 롯데, NC, 삼성, KT), 북부(LG, 고양, 두산, SSG, 한화) 2개 리그로 진행된다.

남부리그는 팀 당 115경기씩 치르며, 북부리그는 팀당 8경기가 늘어 112경기씩 소화하는 등 10월 6일까지 총 625경기가 펼쳐진다.

경기는 오후 1시에 시작된다.

7월 8일(금)부터 8월 21일(일)까지는 '서머리그 기간'으로 혹서기 선수 보호와 경기력 향상을 위해 오후 6시 야간 경기가 진행된다.

퓨처스리그 경기가 취소될 경우에는 다음 날 더블헤더가 편성되며, 1·2차전 모두 7이닝 경기로 치러진다. 단 혹서기인 7·8월에는 더블헤더를 진행하지 않는다.

한편 문경에서 상무야구단과 퓨처스리그 개막전을 치를 예정이었던 KIA는 상무 선수단의 코로나19 집단 감염으로 경기에 나서지 못했다. KIA 선수단은 함평 챌린저스필드에서 훈련 일정을 소화한 뒤, 8일 NC 다이노스와 원정경기에 나선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임성재 "컨디션 좋아요"** 임성재가 5일 마스터스 골프 대회가 열리는 미국 조지아주 오거스타의 오거스타 내셔널 골프클럽(파72) 2번째 홀에서 연습 라운딩하고 있다. 대회는 7일 개막해 나흘 동안 열린다. /연합뉴스

## PGA 마스터스 내일 개막…임성재·김시우·이경훈 출전

미국프로골프(PGA)투어 시즌 첫 번째 메이저 대회인 마스터스 골프 대회가 7일(한국시간) 오후 미국 조지아주 오거스타의 오거스타 내셔널 골프클럽(파72)에서 나흘 동안 열전에 들어간다.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면서 올해 마스터스는 3년 만에 익숙한 모습을 되찾는다.

반가운 소식은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미국)의 필드 복귀다.

우즈는 작년 2월 자동차 사고로 다리를 절단할 뻔할 만큼 크게 다쳐 선수 생명이 끝나는가 했으나 필사의 재활 끝에 재기, 자신이 5차례나 우승한 마스터스를 복귀 무대로 선택할 참이다. 아직 명확한 결정은 내리지 않았지만, 우즈는 지난주 오거스타에 도착해 연습 라운드를 하면서 경기에 나설 준비를 하고 있어 출전 가능성이 높다.

한국 선수는 임성재(24), 김시우(27), 이경훈(31) 등 3명이 출전 선수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셋은 작년 마스터스 이후 미국프로골프(PGA)투어 대회 우승자 자격을 마스터스 초청장을 손에 넣었다.

세 번째 오거스타 내셔널 골프 클럽을 밟는 임성재는 2020년 준우승을 차지했던 터라 당당한 우승 후보의 일원이다.

오거스타에서 자동차로 2시간 거리에 사는 '조지아 주민' 임성재는 일찌감치 현지 적응에 나섰다.

이번이 6번째 출전인 김시우도 '경험이 무기'인 마스터스에서 일을 낼 때가 됐다는 기대감을 안고 오거스타에 입성했다.

이경훈은 이번이 첫 출전이다.

당장은 내년에도 출전할 수 있는 12위 안에 드는 게 첫 번째 목표다.

우승 경쟁은 어느 때보다 뜨거울 전망이다. 스포츠 전문 도박업체는 세계랭킹 2위 욘 람(스페인)을 우승 후보 1위로 꼽았다.

저스틴 토머스와 조던 스피스(이상 미국), 그리고 새로운 세계랭킹 1위 스코티 셰플러와 2020년 우승자 더스틴 존슨(미국), 로리 매킬로이(북아일랜드), 캐머런 스미스(호주), 콜린 모리카와(미국) 등을 우승 가능성이 높은 선수로 거론했다.

/연합뉴스

# 광주FC, 안방에서 3연승 도전

## 오늘 부산아이파크와 대결

광주FC가 '안방 강세'를 이어 3연승에 도전한다.

광주가 6일 오후 7시 광주축구전용구장에서 부산아이파크를 상대로 K리그2 2022 9라운드 홈경기를 벌인다.

광주는 앞서 경남 원정에서 선제골을 내줬지만 이순민과 허율의 오른발과 머리로 승부를 뒤집으면서 2-1 역전승을 거뒀다. 이와 함께 3연승에서 멈췄던 걸음을 재촉하면서 다시 연승을 이었다.

승점 1점 차 부천FC도 8라운드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선두에 오르지는 못했지만, 광주는 2위(5승 2패·승점 15)자리에서 추격을 이어가고 있다.

광주는 올 시즌 홈에서 80% 승률을 기록하고 있다.

"홈에서만큼은 팬들에게 짜릿한 경기를 선보이겠다"는 이정효 감독의 의지처럼 올 시즌 광주는 FA컵 포함 홈에서 4승 1패의 전적을 기록하고 있다.

6일 부산을 안방으로 불러들이는 광주는 10일에도 전남드래곤즈와 홈에서 '옐로더비'를 펼친다.

홈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 광주는 홈팬들 앞에서 1위 자리에 올라서겠다는 각오로 홈 2연전을 준비하고 있다.

광주의 상승세에는 '화력'이 있다.

'브라질 특급' 헤이스가 4골을 넣으면서 해결사 역할을 하고 있고, 이건희도 3득점 중이다.

경남전에서 머리로 결승골을 장식했던 장신 공격수 허율은 앞선 7라운드 충남아산전에서는 역시 머리로 도움도 올렸다.

이으뜸과 이순민의 활약도 눈부시다.

좌측면 수비수 이으뜸은 올 시즌 1골 3도움을 올리며 승리를 부르고 있다. 앞선 경남전에서도 허율의 골을 도우며 승리의 조연이 됐다.

이순민은 앞선 경남전에서 중앙 미드필더로 나와 광주가 기록한 17개의 슈팅 중 7개를 담당했다. 후반 17분에는 페널티박스 밖으로 흘러나온 공을 오른발 강슛으로 연결해 마수걸이 골도 기록했다.

이순민은 올 시즌 페널티박스 밖에서 10개의 슈팅을 날리면서 에르난데스(경남)와 공동 1위, 유효슈팅은 7개로 공동 7위에 자리하고 있다.

태클 성공 11회(공동 2위), 차단 21회(공동 2위) 그라운드 경합 성공 14회(공동 4위) 등 미드필더 본연의 역할에도 충실히 임하고 있다.

이번에 만나는 부산은 올 시즌 1승 2무 5패, 승점 5점에 그치면서 10위에 자리하고 있다.

부산과의 상대전적에서는 광주가 5승 10무 4패로 근소한 우위를 점하고 있다.

최근 분위기와 상대전적에서는 광주가 앞선 모습이지만 부산은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K리그의 '전통 강호'다.

지난해 K리그2 득점왕 안병준과 함께 주장 박종우, 박정인, 최준 등 출중한 실력의 선수들이 즐비하다. 광주 선수들은 마지막 순간까지 집중하면서 부산의 공세를 막아야 한다.

광주가 상승세를 이어 부산을 상대로 1위를 위한 승리를 만들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 이순민·허율 8라운드 베스트11

이순민

허율

광주FC의 역전승을 합작한 이순민과 허율이 베스트11에 이름을 올렸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이 K리그2 8라운드 경기를 평가해 베스트 11을 선정했다.

광주에서는 지난 3일 경남 원정에서 나란히 골을 기록한 이순민(MF)과 허율(FW)이 명단에 포함됐다. 이순민은 0-1로 뒤진 후반 17분 오른발로 경남 골대를 가르면서 경기를 원점으로 돌렸다. 교체 멤버로 들어갔던 허율은 후반 43분 이으뜸의 크로스를 받아 머리로 골망을 흔들면서 승부를 뒤집었다. 광주는 두 사람의 득점으로 2-1 역전승과 함께 연승을 달리며, 2위 자리를 수성했다.

한편 8라운드 MVP의 영예는 FC안양의 김경중에게 돌아갔다.

김경중은 지난 2일 김포FC와의 홈경기에서 멀티골을 기록하며 안양의 3-2 승리를 이끌었다.

베스트 매치로는 부천종합운동장에서 열린 부천FC와 대전하나시티즌의 경기가 선정됐다.

부천은 2일 경기에서 후반 시작 35초 만에 나온 박창준의 선제골로 리드를 잡았지만, 후반 28분 대전 조유민에게 동점골을 내줬다. 4분 뒤 닐손주니어가 헤더로 결승골을 만들면서 부천이 2-1 승리를 기록했다. 연승에 성공한 부천은 선두 자리를 지키면서 8라운드 베스트 팀에도 선정됐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